

## 예술로 전쟁, 평화란 말하다

백남준은 방송국 프로그램에도 관심이 많아서 방송국과 함께 작업하였습니다. 미국의 보스턴 공영방송 WGBH의 제안으로 진행된 <매체는 매체다> 프로그램의 성공을 계기로 백남준은 록펠러 재단으로부터 지원금을 받게 되었고, 뉴욕 WNET TV의 상주 작가로 지내면서 <과달카날 레퀴엠>을 제작하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미군과 일본군 사이의 격전이 벌어졌던 과달카날섬에서 살롯 무어먼은 총 대신 첼로를 등에 매고 해변에서 포복하고, 요셉 보이스의 펠트천으로 싼 첼로로 백남준의 <평화 소나타>를 연주하였습니다. 백남준은 승자와 패자 모두에게 전쟁의 기억은 상처라고 생각하고 모두에게 치유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살롯 무어먼의 퍼포먼스, 참전자들의 인터뷰, 전쟁 다큐멘터리 장면을 편집하고, 이미지를 겹치거나 색상을 조작하여 이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그는 이 작품을 통해 전쟁에 대해 직접적으로 비판하지는 않지만 전쟁의 상처, 치유, 그리고 평화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기억은 모두에게 상처야. 우리는 모두 치유가 필요해”



백남준 · 살롯 무어먼, <과달카날 레퀴엠>, 비디오, 1977

- 요셉 보이스는 펠트와 기름덩어리로 전위적인 조형작품과 퍼포먼스를 발표하였으며, 현대미술에 큰 영향을 미친 독일출신 예술가예요.
- 요셉 보이스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비행기 사고로 의식을 잃었을 때 타타르인들이 민간요법으로 온몸에 지방을 바르고 펠트천으로 감싸서 낮게 해주었어요. 그래서 펠트천은 치유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 함께 생각해 보기!

1. 살롯 무어먼은 공연중에 왜 경찰에 연행되었나요?

2. 과달카날 레퀴엠에서 백남준이 표현하려고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 GENTLE DISTURBANCE Talking Paik

부드러운 교란  
백남준을 말하다

2013.01.29 - 2013.06.30  
백남준아트센터 1F

백남준	Nam June Paik
저드 알컷	Jud Yalkut
만프레드 레베	Manfred Leve
살롯 무어먼	Charlotte Moorman

어린이를  
위한  
리플렛





〈부드러운 교란〉은 백남준의 친구였던 설치예술가 크리스토폴와 잔-클로드 부부가 사용했던 표현이에요. 자신들처럼 백남준도 정치, 사회적인 문제를 제기하면서 매력적인 유머를 구사하며 부드러운 교란을 일으켰다고 해요.

상설전 〈부드러운 교란-백남준을 말하다〉는 백남준의 사회적 의식을 담은 작품과 그와 함께 작업했던 작가들의 작품이 함께 전시되어 있어요. 백남준은 전쟁, 성, 금기, 정치, 사회문제, 사회적 제도 등을 예술로 자유롭게 표현하였어요.

### 마르크스와 쇤베르크에게 영향을 받다

백남준은 경기보통중학교 재학 당시 마르크스의 사회주의에 심취해 있었으며, 기존의 음계를 파괴하여 12음 기법을 창시해, 무조음악을 정립한 쇤베르크의 음악에 매료되어 있었어요. 훗날 도쿄대학에서 〈아놀드 쇤베르크 연구〉로 졸업논문을 쓸 만큼 깊은 영향을 받았어요. 백남준은 어린시절 정신적 스승이었던 마르크스와 쇤베르크의 영향으로 독창적이고 급진적인 예술활동을 펼쳤어요.



한국, 독일, 미국 등에서 백남준의 행로를 추적한 다큐멘터리 〈백남준, 다시 재생하기〉에서 백남준은 나에게서 두 스승이 있으며, 그들은 칼 마르크스와 아놀드 쇤베르크라고 말했어요.



장-폴 파르지에, 〈백남준, 다시 재생하기〉, 비디오, 1990

“ 칼 마르크스와 아놀드 쇤베르크는 나의 정신적 스승이야. ”

### 음악에서 성을 이야기하다

쇤베르크의 영향을 받아 음악 공부를 한 백남준은 문학, 미술 등의 분야와 달리 음악에서 금기시되던 성을 교란장치로 사용하여, 사회와 기성 예술계에 반문하고, 전통에 도전했어요. 그는 1964년 미국으로 건너가 첼리스트 샬롯 무어먼을 만난 후, 본격적으로 성을 다른 퍼포먼스를 펼치게 되었죠.



저드 알케트, 〈오페라 섹스트로니크〉 포스터, 1967

백남준이 작곡한 〈오페라 섹스트로니크〉에서 샬롯 무어먼은 전구로 만든 비키니를 입고 첼로를 연주하다 옷을 하나씩 벗으며 마지막에는 전라로 첼로 대신 폭탄을 연주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공연을 다 끝내지 못하고 공연 중에 샬롯 무어먼은 과다 노출죄로 경찰에 잡혀갔어요. 이 일은 미국 사회에서 큰 사건이 되어 이전에는 공공장소에서 여성의 노출이 허용되지 않았지만 예술의 경우 여성의 상반신 노출이 허용되도록 법이 바뀌었어요.

“ 나는 그냥 옷을 벗은게 아니고 연주를 한거야. 이것은 예술적 표현이야! ”

위의 공연이 있었지 21년 후인 1988년, 기사를 통해 무어먼의 예술적 행보를 자세히 볼 수 있었어요.



실라 인 피니, 〈데일리뉴스〉, 신문기사, 1988

“ 벌거벗은 상념들: ‘상체를 드러낸 첼리스트,’ 자신의 예술과 암 투병 생활을 되돌아보다 ”

- 교란이란 마음이나 상황 따위를 뒤흔들어서 어지럽고 혼란하게 하는 것을 말해요.
- 샬롯 무어먼은 미국의 첼리스트이자 백남준과 오랜 기간 함께 작업한 퍼포먼스 아티스트예요.